

## 재미 한인기업의 현황과 경영 실태\*

김 태 기\*\*

본 연구는 재미 한인 기업의 현황과 경영실태를 분석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의 전반적인 현황은 미국 통계청의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경영실태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현지에 투자한 기업의 실태는 KOTRA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재미 한인 기업의 규모는 미국 전체 기업의 평균규모보다 작은 편이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교류도 많지 않다. 한인 기업의 투자경험도 많지 않으며, 특히 한국에 대한 투자경험은 거의 없었다. 재미 한인 기업의 경영실태를 보면,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의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재미 한인기업과 한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재미 한인기업, 기업현황, 경영실태

### I. 서 론

미국 통계청 센서스에 의하면 재미 한인의 수는 2001년 약 107만명이며, 한인 기업의 수는 1997년 약 14만개이다. 대체적으로 이민자들의 창업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특히 재미 한인의 창업 비율은 어느 민족보다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인들의 창업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한인들이 이민 전 한국에서 가졌던 직업에 상응한 지위를 미국 사회에서 얻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한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좋은 직업을 얻기 힘들어지자 창업의 길로 들어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재미 한인 기업의 경영실태를 분석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의 전반적인 현황은 미국 통계청의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경영실태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현지에 투자한 기업의 실태도 분석하였다. 재미 한인 기업의 규모는 미국 전체 기업의 평균규모보다 작은 편이고, 한국을 비

\* 이 연구는 2003년도 이 연구는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특성화과제연구비(KRF-2003-072-BL2002)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2차년도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보고서의 작성에는 공동연구원 홍성우교수, 손기형교수, 이승준교수와 전임연구원 장선미박사, 연구보조원으로 대학원생 조수미양과 첨군향양이 참여하였다.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겸임연구원, Tel: 062-530-1455, E-mail: tgkim@chonnam.ac.kr

뜻한 외국과의 교류도 많지 않다. 한인 기업의 투자경험도 많지 않으며, 특히 한국에 대한 투자경험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에 투자를 생각하는 기업은 많았다.

일반적으로 재미 한인 기업의 경영실태를 보면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의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재미 한인기업과 한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한인기업과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과 교류를 통해 서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이 한국경제와 한인기업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중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한인기업의 창업배경을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정리하고, 미국 통계청의 경제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미국 기업의 전체적인 분포와 재미 한인기업의 분포를 비교한다. 제Ⅲ장에서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황을 지역별, 산업별로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설문조사를 이용해 재미 한인기업의 경영활동과 한국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요약한다.

## Ⅱ. 미국내 재미 한인기업의 위치

### 1. 한인 기업의 창업 배경

한인의 미국 이민은 196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재미 한인 인구의 증가로 한인의 기업수도 급격히 증가해 갔다. 한인의 창업률은 다른 민족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예를 들어 1980년까지 한인인구는 전체 LA 인구의 0.8%에 불과했지만, LA 카운티 전체 사업체의 2.6%, 소매업의 5%를 차지했고, 1980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LA 거주 한국인의 22.5%가 자영업자이거나 무급가족노동자로 LA 카운티 평균인 8%의 거의 세 배였다. 이러한 한인들의 왕성한 창업은 LA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한인만이 아니라 이주자들의 왕성한 창업은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Boissevain(1984)에 의하면 구주공동시장에서도 1945년 이후 처음으로 1978년에 자영업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Ward and Jenkins(1984)은 영국에서의 그리스인, 이태리인, 힌두인, 쉬크인, 파키스탄인 등 외국출생 이주

자들의 자영업 진입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한인들은 대기업들이 소홀히 하는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이 사는 저소득 지역과 한인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확대하면서 부와 고용을 창출하였다.

그러면 왜 미국출생 미국인들 보다 이민자들이, 특히 한국인들이 더 자주 자영업을 선택할까? 소수민족 중간자 이론(Middleman Minority Theory)은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와 하층민간의 중간자의 위치에서 틈새시장의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창업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소수민족 중간자 이론은 유대인, 중국인, 짐시 등 유량의 성향이 있는 민족을 대상으로 한 이론인데, 한인들은 이런 유량의 경험 없는 민족이라는 점에서 한인들의 창업 활동을 소수민족 중간자 이론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인의 경우 미국 이민 후 주류사회에 진입하기는 어렵고, 이민 전 한국에서의 지위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하층민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창업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창업에는 민족자원과 계층자원이 필요하다. 민족자원은 그 민족이 갖는 속성을 말하고, 계층자원은 사회에서 형성된 자원을 말한다. 한인들의 경우 민족자원과 계층자원 모두가 창업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인 이민자들이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고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미국 입국시 지참금이 많다는 점에서 계층자원(class resource)이 풍부하다. 그리고 동족간의 정보교환, 장시간 노동, 무급가족노동력 동원, 연고주의, 검소한 식생활, 학연, 가족, 집단결속력, 계 등 창업에 필요한 민족자원(ethnic resource)도 풍부하다. 이와 같이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계층자원과 전통적인 민족자원 두 측면 모두에서 창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다른 민족에 비해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의 경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대출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기자본을 주로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는 친인척자본이나 계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들에게 공적금융기관인 은행의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Squire and Kim (1995)은 보스톤지역 은행 연구에서 흑인과 히스패닉이 거절당한 담보대출은 56%로 다른 인종에 비해 높는데, 이는 은행의 대출이 신용만이 아니라 인종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은행이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소득층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Immergluck and Mullen (1997)은 1993-1996사이 시카고 지역의 6개 카운티에서 이루어진 비즈니스 대출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하류층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몫의 76%만을 대출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상류층은 자기들의 몫보다 7%이상을 더 대출 받았던 것으로 분

석했다. 이는 대출이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한인들도 소수민족 이민자로서 이런 장애가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은행대출의 이용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한인들은 창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기자본이나 친인척의 자본을 이용하였다.

## 2. 재미한인 기업현황: 미국 경제센서스

### 1) 한인 기업의 산업별 현황

<표 1>은 미국 경제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한인기업과 미국 전체기업의 산업별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1997년 기준으로 한인 기업이 미국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 수는 0.65%이고 매출액은 0.25%이다. 한인기업이 기업 수에 비해 매출액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이는 한인기업의 규모가 미국 전체 기업의 평균규모에 비해 작음을 나타낸다. 미국 전체 기업의 평균매출액은 89만 달러임에 비해 한인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34만 달러로 미국 전체 기업 평균매출액의 38.0%에 불과하다.

<표 1> 한국과 미국의 산업별 기업현황 비교 (1997년)

	기업 수 (a)				매출 (b)				기업당 매출(b/a, 천달러)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개수 (천개)	비율 (%)	개수	비율 (%)	금액 (10억달러)	비율	금액 (백만달러)	비율		
전체	20,822	100.0	135,571	100.0	18,553	100.0	45,936	100.0	891	339
농림어업	496	2.4	664	0.5	64	0.3	.	.	129	.
광업	127	0.6	70	0.1	177	1.0	.	.	1,393	.
건설관련업	2,333	11.2	5,490	4.0	944	5.1	781	1.7	405	142
제조업	689	3.3	3,620	2.7	4,022	21.7	3,377	7.4	5,839	933
교통,통신	920	4.4	3,698	2.7	1,184	6.4	583	1.3	1,287	158
금융, 보험, 부동산	2,238	10.7	4,096	3.0	2,568	13.8	616	1.3	1,147	150
도매업	798	3.8	6,903	5.1	4,270	23.0	13,346	29.1	5,352	1,933
소매업	2,889	13.9	42,916	31.7	2,649	14.3	17,165	37.4	917	400
기타서비스업	8,891	42.7	58,003	42.8	2,615	14.1	9,031	19.7	294	156
미분류산업	1,480	7.1	10,156	7.5	62	0.3	975	2.1	42	96

출처: U. S. Census Bureau, Economic Census 1997.

기업 수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4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매업 13.9%, 건설관련업 11.2%, 금융,보험,부동산업 10.7%의 순이다. 한국 기업 수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미국 전체 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42.8%로 가장 높은데, 다음으로는 소매업의 비중이 31.7%로 미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 다음으로는 도매업, 건설관련업의 순이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전체 기업은 도매업, 제조업, 소매업의 순인데, 한인기업은 소매업, 도매업, 기타서비스업의 순이다. 미국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매출비중은 21.7%임에 비해 한인 제조업의 매출비중은 7.4%에 불과하여 한인 기업들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당 매출을 보면, 미국 전체 기업의 평균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매출 비중이 매우 크다. 한인 기업도 이 두 산업에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미국 기업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매우 작다.

1997년 현재 제조업 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섬유제품 제조업이다. 제조업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수 기준으로는 52%, 매출액 기준으로는 34.6%이다. 제조업내에서 비중이 큰 산업은 기업 수 기준으로는 인쇄, 출판관련이 11.2%, 식료품 5.6%의 순이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기제품과 관련 장비가 16.6%, 직물가공이 15.5%의 순이다.

미국 전체기업은 내구재 도매업이 56%로 비내구재 도매보다 그 비중이 큼에 비해, 재미 한인 도매업은 비내구재 도매업이 54%로 내구재보다 그 비중이 더 크다. 소매업을 살펴보면, 한인의 소매기업 가운데 식품소매와 요식업 기업 수가 각각 24.1%, 23.7%로 많았고 다음으로 의류·액세서리 소매기업(14.7%) 많았다. 미국 전체 기업으로 보면, 요식업을 하는 기업이 1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동차소매·주유소업(8.8%), 식품소매(7.5%) 순이었다. 한인 소매업은 미국 평균에 비해 식품소매와 요식업에 집중되어 있다.

재미 한인 서비스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기업이 진출한 분야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으로 22,619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업의 39%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많은 분야는 사업서비스 26.8%, 건강서비스 9.2%이다. 미국 전체 서비스 기업 자료를 보면, 사업서비스 기업 수가 전체 서비스업의 2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학·회계·조사·관리서비스 16.3%, 개인서비스 15.2%이다. 한인 서비스업은 미국 평균에 비해 개인대상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2) 한인 기업의 형태별 현황

미국 전체 기업의 형태별 분포를 보면, 개인기업의 비중이 72.6%로 가장 높고, C분류나 S분류의 기업이 각각 11.5%, 9.5%이다. 한인 기업도 자영업을 포함한 개인 기업 수의 비중이 75.6%로 가장 높고, C와 S분류의 기업 수는 각각 전체 한인 기업의 12.9%, 8.7%이다. 한인 기업의 형태별 분포는 미국 전체 기업의 분포와 유사하다. 그러나 형태별 매출 비중은 한인기업과 미국기업 간에 차이가 크다. 한인 기업 매출액 중에서는 개인기업의 비중이 24.6%임에 비해 미국 전체적으로는 개인기업의 비중이 4.7%에 불과하다. 미국 전체적으로 C분류 기업이 전체 매출의 약 75%를 담당함에 비해 한인 기업에서는 C분류의 기업이 전체 매출의 31.7%를 차지하고 있다.

C분류나 S분류에 속하는 한인 기업의 기업당 평균 매출은 미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개인기업의 기업당 평균 매출은 미국 평균보다 약 2배가 더 많다.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규모는 미국 평균보다 작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규모는 미국 평균보다 크다.

<표 2> 재미 한인 기업 형태별 현황(1997년)

	기업 수 (a)				매출 (b)				기업당 매출(b/a, 천달러)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개수 (천개)	비율 (%)	개수 (%)	비율 (%)	금액 (10억달러)	비율	금액 (백만달러)	비율	미국	한국
전체기업	20,822	100.0	135,571	100.0	18,553	100.0	45,936	100.0	891	339
C 분류	2,390	11.5	17,525	12.9	13,892	74.9	14,550	31.7	5,811	830
S 분류	1,979	9.5	11,840	8.7	2,977	16.0	14,296	31.1	1,504	1,207
개인기업	15,123	72.6	102,469	75.6	872	4.7	11,279	24.6	58	110
파트너십	1,226	5.9	2,793	2.1	622	3.4	784	1.7	507	281
기타	103	0.5	943	0.7	190	1.0	5,028	10.9	1,853	5,332

출처: U. S. Census Bureau, Economic Census 1997.

주: 1) C분류 법인은 S분류를 제외한 법인임. 2) S분류법인은 주주가 75명 이하인 법인으로 세금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에게 부과되어 조세에서 이점이 있음. 3) 개인기업은 개인이 소유한 기업으로 주식회사가 아님. 4) 파트너십은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한 기업으로 주식회사가 아님. 5) 알려지지 않은 법적 형태의 조직으로서의 기업임.

&lt;표 3&gt; 재미 한인 기업의 지역별 분포 (1997년)

주 (state)	기업 수	비율	매출 (백만달러)	비율	기업당 매출 (천달러)
전 지역	135,571	100.0	45,936	100.0	339
캘리포니아	43,465	32.1	20,661	45.0	475
매리랜드	5,831	4.3	1,290	2.8	221
뉴욕	20,244	14.9	4,619	10.1	228
텍사스	6,305	4.7	1,836	4.0	291
하와이	3,585	2.6	861	1.9	240
뉴저지	8,303	6.1	3,831	8.3	461
일리노이	7,946	5.9	1,714	3.7	216
플로리다	2,534	1.9	527	1.2	208
워싱턴	5,477	4.0	1,868	4.1	341
버지니아	5,169	3.8	973	2.1	188

출처: U. S. Census Bureau, Economic Census 1997.

### 3) 한인 기업의 지역별 현황

한인 기업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밀집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에 가장 많은 약 4만3천여개(32.1%)의 기업이 있고, 뉴욕에 2만여개(14.9%)의 기업이 있다. 뉴욕지역에 뉴저지를 포함시키면 이 지역의 기업 수는 전체의 약 21%가 된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두 지역에 전체 기업의 52.1%가 있다. 기업 수만이 아니라 매출액도 이 두 지역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기업당 매출액의 규모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에 위치한 기업이며, 나머지 지역의 기업은 평균보다 아래다. 한인 인구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지역에 한인기업도 집중되어 있다.

## Ⅲ. 미국진출 한국 기업의 현황

### 1.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에 의하면 2004년 4월 기준 미국에는 총 705개의 한국투자기업이 있다. 해외로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는 총 6,846개이며 이중 절반가량인 3,004개 업체가 중국에 진출

해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지역에 투자한 기업 수가 가장 많으며,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으로의 기업진출은 1960년대부터 이루어져왔다. 전체적으로는 705개 업체가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기업명과 투자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는 693개다. 여시서는 이들 693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지역별 현황

투자기업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LA지역이 총 234개 기업(3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뉴욕으로 179개 기업(25.8%)이 있다. 미국 현지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LA와 뉴욕의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두 지역은 미국 전체 거주 한인의 약 40%가 거주하는 한인 밀집지역이기도 하다<sup>1)</sup>.

<표 4>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지역별 현황 (2004년)

지역	기업 수		종업원 수 (명)	현지인고용 비율 (%)	연매출액 (백만불)	총투자액 (백만불)
	개수	비율				
LA	234	33.8	49.3	54.5	9,054	38
뉴욕	179	25.8	21.6	48.4	1,502	.
샌프란시스코	90	13.0	58.4	47.5	50	95
시카고	56	8.1	50.7	50.7	88	22
아틀란타	34	4.9	58.8	78.3	258	5,012
디트로이트	32	4.6	9.8	33.4	56	10
달라스	29	4.2	57.2	49.6	63	233
워싱턴	25	3.6	9.1	52.2	8	3
마이에미	14	2.0	10.3	66.0	41	9
전체	693	100.0	39.6	52.6	4,614	654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주: 1) 매출액은 191개 기업, 투자액은 16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임.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중 1970년대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5개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고, 1970년대 50개 업체, 1980년대 123개 업체, 1990년대 196개 업체, 2000년대 상반기 127개 업체로 점차 투자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1990년

1) 미국 2000년 센서스 기준 한인의 인구분포에 의하면 전체 한인중 24%가 LA%, 16%가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이후에 투자한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47%이며, 미국투자기업의 약 3/4이 총종업원 수 20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투자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약 39.7명이고 이중 현지인의 고용비율은 52.6%이다<sup>2)</sup>. 지역별 종업원 수를 보면, 뉴욕에 비해 LA지역 기업의 평균고용인원이 많고, 아틀란타,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지역 기업의 평균종업원이 약 58명으로 가장 많다. 현지인 고용비율은 LA가 뉴욕보다 약간 높지만 50% 내외이고, 아틀란타가 78.3%로 가장 높고 디트로이트지역이 33.4%로 가장 낮다.

총투자액의 평균은 6억 5천만불이고 연매출액의 평균값은 46억1천만불이다. 지역별로는 총매출액은 LA지역이 가장 높고, 총투자액은 아틀란타지역이 가장 높다. 그러나 지역별 평균 투자액이나 매출액은 기업간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표 5>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산업별 현황 (2004년)

산업	기업수		종업원 수 (명)	현지인고용 비율(%)	연매출액 (백만불)	총투자액 (백만불)
	개수	비율				
농림어업	9	1.3	2.0	0.0	.	650.5
광업	2	0.3	12.5	60.1	5.0	0.4
제조업	225	32.6	69.9	49.1	138.3	1523.6
서비스업	411	59.5	26.6	54.9	7037.9	19.3
도소매업	228	33.0	24.9	54.3	9828.8	27.2
건설업	7	1.0	75.3	55.3	8.2	0.5
부동산, 임대사업	8	1.2	.	.	.	.
숙박, 음식점	8	1.2	45.5	63.2	10.5	0.8
운수, 창고업	64	9.3	41.4	62.7	462.0	2.6
전기, 가스, 수도사업	2	0.3	.	.	.	.
교육서비스	4	0.6	5.7	51.1	0.2	0.2
금융, 보험업	45	6.5	13.1	49.3	125.9	.
통신업	12	1.7	23.6	67.1	8.0	5.0
기타서비스업	33	4.8	12.6	42.0	5.6	2.0
기타	44	6.4	12.2	50.7	30.7	7.1
전체	691	100.0	39.6	52.6	4613.6	654.1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2) 여기서 종업원은 파견직원과 현지고용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3. 산업별 현황

미국에 진출한 기업의 절반이 넘는 약 60%가 서비스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도소매업의 비중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로의 진출도 전체의 3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간 규모의 차이를 보면 종업원 수의 경우 제조업이 69.9명으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의 평균은 약 27명으로 제조업보다는 규모가 작다. 현지인 고용비율은 전체 평균이 52.6%인데, 산업간에 큰 차이는 없다. 투자액은 제조업이 많음에 비해 매출액은 서비스업이 많은데, 이는 산업별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 4. 진출형태

기업의 진출형태는 크게 3가지로 법인, 지점, 연락사무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단독투자, 합작투자, 합자투자로 나누어지는데 단독투자는 투자기업의 지분을 99%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고 합작투자와 합자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이다.

미국진출기업의 54%는 법인형태이고 그중에서도 단독투자의 형태가 36%로 가장 높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은 전체적으로 단독투자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KOTRA의 자료에 의하면 해외진출방식중 약 50% 이상이 단독투자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지역의 경우 65%가 단독투자방식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진출의 경우 단독투자비율이 약간 낮은 편이다.

<표 6>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산업별 현황 (2004년)

투자형태	기업 수	비율
법인	292	53.39
단독	197	36.01
합자 / 합작	22	4.03
기타	73	13.35
연락사무소	58	10.6
지사 / 지점	175	31.99
기타	22	4.02
전체	547	100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 IV. 재미한인기업 경영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1.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시카고지역에 있는 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미국 현지의 한미경제개발연구소(KAEDC: Korean American Economic Development Center)에서 대행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였다. 조사에 응한 266개 기업 중 설문사항의 50%이상을 답하지 않았거나 설문에 무성의하게 응답한 14 기업을 제외하고 총 252개의 완성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총 39개 문항으로 기업의 일반현황에 대한 5개 질문, 기업경영활동 및 한국과의 관련성에 관한 30개 질문, 응답기업의 기본특성에 대한 4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조사대상 일반현황

분석 대상 기업을 지역별로 보면 LA지역이 94개(37%), 뉴욕이 39개(16%), 기타 지역이 119개(47%)로 총 252개 기업이다. 기타 지역은 시카고, 워싱턴, 뉴저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이다. 1997년 경제센서스에 의하면 한인기업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32%, 뉴욕지역에 15% 분포해 이 두 지역에 전체의 50%가량이 집중해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미국 전체 한인기업의 지역별 분포와 크게 차이가 없다. 설문응답자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09개(45%)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부문이 81개(34%), 제조업이 19개(8%), 기타가 32개(13.3%)이다. 1997년 미국 경제센서스에서 한인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업이 56%, 도소매업이 37%, 제조업이 3%였고, 미국 전체 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70%, 도소매업이 17%, 제조업이 3%였다. 기업의 설립연도별 분포를 보면 1990년대 설립한 기업이 52개(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00년대 이후 설립한 기업이 40개(33%)로서 1990년대 이후 설립한 기업이 전체 응답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소유주의 연령을 보면 40대가 39%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50대가 38%를 차지해 40-50대의 비율이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02 경제센서스에서 미국 전체 기업 소유주의 연령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45-54세 사이(32%)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86%, 여성이 14%를 차지해 조사대

상 기업 소유주의 대다수가 남성이다.<sup>3)</sup> 또 기업소유주는 이민 1세대가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이민이 시작된 시점이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로 이민의 역사가 짧은 것이 한 요인으로 보인다. 소유주의 이주 시기는 1980년대가 48%로 가장 높다. 윤인진(1996)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미국 이민은 1970년대 중반 이후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한 연고이민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민의 숫자에 비례해 기업인의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한인기업의 규모와 경영활동

#### 1) 규모

먼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대상기업 전체를 살펴본 결과 종업원 수가 10인-50인 미만인 경우가 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인 미만인 경우가 32%이다. 전체적으로 종업원 수 10인 미만인 기업이 53%로 조사 대상기업의 절반이상이 소규모이지만,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은 12%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10-50인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고, 도소매업과 기타의 경우 5인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기업규모가 도·소매업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1997년 경제센서스에 의하면 유급종업원을 고용한 한인기업의 경우 평균 고용인 수는 6.7명이였다. 미국 전체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가 19.5명이라는 점에서 한인기업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표 7> 산업별 종업원 수의 비율

종업원 수	전체기업		서비스 부문		제조업부문		도·소매업부문		기타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5인 미만	78	32.37	31	29.81	3	15.79	28	35.44	14	46.67
5-10인 미만	50	20.75	16	15.38	4	21.05	19	24.05	6	20
10-50인 미만	85	35.27	40	38.46	8	42.11	26	32.91	9	30
50인 이상	28	11.62	17	16.35	4	21.05	6	7.59	1	3.33
전체	241	100	104	100	19	100	79	100	30	100
무응답	11		5		0		3		2	

3) 2002년 미국 경제센서스의 기업 소유주 성별분포에서는 남성이 71%, 여성이 27%였다.

&lt;표 8&gt; 자본 규모별 비율

자본규모	설립 / 인수당시		현재 (2004년)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15만불 미만	95	40.6	34	14.98
15만-30만불 미만	53	22.65	27	11.89
30만-100만불 미만	54	23.08	66	29.07
100만-500만불 미만	23	9.83	67	29.52
500-1000만불 미만	4	1.71	15	6.61
1000만불 이상	5	2.14	18	7.93
전체	234	100	227	100
무응답	18		25	

두 번째로 자본의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설립당시의 자본 규모는 15만불 미만이 41%로 가장 높았으나 2004년 현재의 자본규모는 100만불-500만불 사이의 기업이 30%로 가장 높았다. 대체로 설립당시보다는 현재의 자본 규모가 커졌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면 자본금 기준 중소기업 범주는 제조업의 경우 자본금 80억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에 해당된다.<sup>4)</sup> 조사대상 한인기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의 범주에 드는 기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 2002년과 2003년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응답을 회피하고 있어 응답한 기업은 전체 252개 기업 중 30% 수준인 72개 기업이었다. 그 중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는 3개 기업(outlier)을 제거하고 총 69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평균매출과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보면 매출액의 경우 2002년-2003년 기간동안 397만 달러에서 494만 달러로 약 24%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도 31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로 약 20%가량 증가하였다. 2002년과 2003년 기간동안 해당기업의 매출액 증가분은 평균 96억 달러이고, 당기순이익은 증가분은 평균 6억 달러인데, 이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sup>5)</sup>

2002년과 2003년 업종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2003년 기준 매출액을 보면 제조업이 1,530만 달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이

4)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의 경우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 범주는 없다. 다만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경우 매출액 100억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5) 2003년과 2004년의 값의 차이가 유의한가는 T-test를 이용하였다.

482만 달러, 도·소매업이 380만 달러, 기타가 228만 달러의 순이다. 2003년 기준 당기순이익도 제조업이 109.5만 달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32.6만 달러), 도·소매업(28.9만 달러), 기타(28.8만 달러)의 순이다. 2002년의 경우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모두 제조업이 가장 높아 2003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9> 부문별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

	기업 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서비스 부문	30	34,036	4,824	235	326
제조업 부문	6	12,833	15,300	833	1,095
도·소매업 부문	21	3,423	3,804	267	289
기 타	10	2,203	2,282	349	288
전 체	69	3,974	4,935	314	375
F-값		4.05	3.54	3.28	4.48

2) 한인기업의 설립과 경영 중점사항

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미국(72%)에서 축적된 자본을 이용하고 있고, 한국에서 가져온 자본을 이용한 기업은 22%였다. 대부분 기업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미국에서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자기 자본이나 유산을 이용한 경우가 58.5%로 가장 높고, 은행대출(20.8%), SBA대출(3.3%), 투자기금(4.3%) 등 대출을 이용한 경우가 28.5%이며, 친척 및 가족에게 빌린 경우가 10.4%이다. 절반 이상의 기업이 자기 자본을 이용해 기업을 설립하고 있으며, 은행 등 대출을 이용한 기업은 1/3정도이다.

기업의 설립 당시 이미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69% 정도이고, 나머지 31%는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은 35% 정도이고, 기술을 이전받은 지역은 미국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은 15%였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 기업은 대체로 기업의 설립/인수 당시 기술이전보다는 실무경험을 통해 창업이 이루어지고,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국 자체내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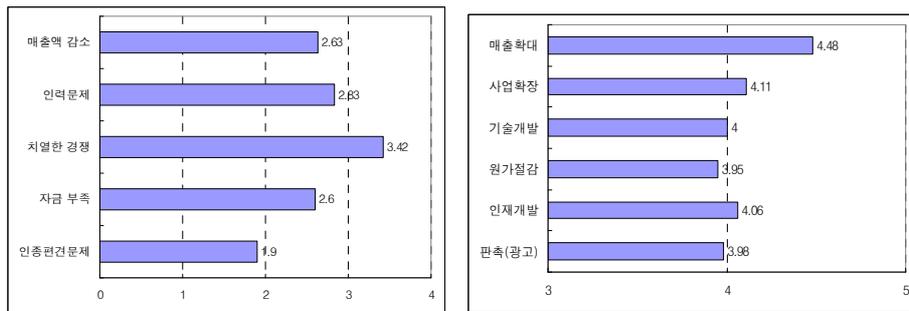
<표 10> 한인기업 설립의 자금 조달

조달방법	자기자본, 유산	은행대출	SBA대출	투자자금	친척 및 가족	사채	기타	전체
기업 수	230	82	13	17	41	5	5	393
비율	58.51	20.87	3.31	4.33	10.43	1.27	1.27	100

주: 1) 복수응답임. 2) SBA대출은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대출을 말함.

한인기업들이 최근 직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치열한 경쟁’이며, 그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이나 인력부족과 같은 ‘인력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소수민족이라는 인종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1.9의 평균을 보여 이로 인한 어려움은 크지 않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기업경영에서 중점을 두는 점은 ‘매출확대’와 ‘사업확장’이었고, 나머지 인재개발이나 기술개발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중요성을 주고 있다. 기업경영의 초점이 수익률 확대에 있다면, 한인기업의 기업경영에 대한 초점도 다른 기업의 경영활동과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기술개발이나 원가절감 등 내적인 문제보다는 전반적인 사업 확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경영의 어려움 (b) 경영상 중점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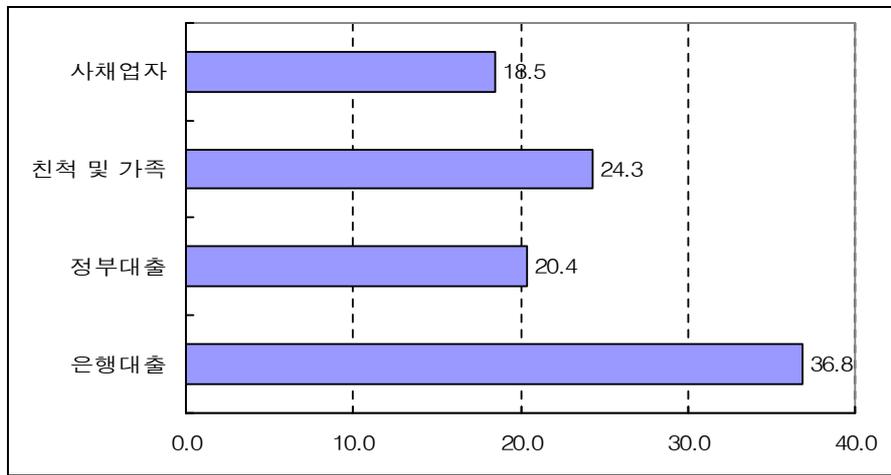
<그림 1> 경영의 어려움과 중점분야 (5점 척도)

3) 한인 기업 경영의 주요 내용

한인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지역은 80%가 미국이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이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중남미 지역이 10%, 한국이

5%의 순이다.6) 직접생산하거나 하청생산을 하는 기업의 경우 원자재를 58%가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은 19%, 한국으로부터는 14%이다. 판매에 비해 원자재 조달에서는 외국과의 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업의 운영자금은 주로 은행대출(36.8%)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친척 및 가족이 24.3%다. 기업의 운영자금을 주로 은행대출로 충당하고 있지만, 친인척 및 가족, 정부대출, 사채업자의 자금을 비교적 고루 이용하고 있다.



<그림 2> 운영자금 조달 방법

제품의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소비자 수요의 동향’(36%)과 ‘소매점/영업담당자의 의견’(17%)이다. 이 둘의 합한 값이 50% 이상으로 수요측면의 변화를 생산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기업운영계획(16.4%)과 생산원가(16.4%)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1> 한인기업 생산계획시 주요 고려 사항

	장기 계획	공장장의 의견	중간상의 의견	소매점/영업 담당자의 의견	생산 원가	소비자 수요의 동향	재고량의 추세	전체
기업 수	46	7	14	48	46	100	19	280
비율 (%)	16.4	2.5	5.0	17.1	16.4	35.7	6.8	100.0

6) 이를 산업별로 분석하여 산업별 특성에 대한 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수준이 ‘보통’이라는 평가가 55%로 가장 많으며, 5점 척도의 평균값이 3.19로 한인기업의 가격수준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원가의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인건비 절감’(42%)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품질관리’(35%)였다.

기업업무의 전산화 정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조사하였다. 첫째 인터넷활용여부, 둘째 홈페이지 보유 활용, 셋째 경영정보시스템화(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관한 사항이다.

첫째 기업활동에 있어 72%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는 기업이 각각 78%와 100%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도·소매업과 기타의 경우 인터넷 활용비율이 60%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둘째,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정도에 불과하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홈페이지가 있는 기업이 각각 57%과 75%이나, 도소매업은 없는 기업이 69%나 되었다. 홈페이지가 있는 기업의 경우 주요 활용분야는 ‘회사홍보 및 상품소개’가 6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제품전시 및 주문처리’가 24%였다. 홈페이지가 없는 기업의 경우 그 이유로는 ‘관리/운영이 어렵다’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다.

셋째, 기업의 업무 중 전산화가 이루어진 분야는 기업의 비용관련(급여 등)분야인 회계관리분야가 45%로 가장 높고, 판매와 관련된 영업관리분야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업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한인 기업의 전산화 정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는 한인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 전산화를 통한 이익의 창출이 기대되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생각된다. <표 12>를 보면, 기업의 홍보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율도 12.9%에 불과하다. 약 20%의 기업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신문, 잡지’를 이용하는 기업이 42.2%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표 12> 한인기업의 홍보매체 활용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구전효과	하지 않음	기타	전체
기업 수	95	10	29	43	46	2	225
비율	42.2	4.4	12.9	19.1	20.4	0.9	100.0

공식적으로 노조가 있는 기업은 1.8%에 불과하였다. 회사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약 47%가 타기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5점 척도의 평균이 3.39로 한인기업의 임금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종업원의 채용 방법으로는 연고채용이 19%, 공개채용이 35%, 둘다 병행하는 경우가 41%였으며, 공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문잡지 등의 광고를 이용하는 것이 79%였다. 종업원 복지를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는 의료, 보건, 위생시설(30%)과 식당/식비부담(26.5%)이 주를 이루고 있고, 회사부담 생명보험가입도 11.9%였다.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85% 이상의 기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5점 척도의 평균이 4.22로 매우 높다.

#### 4. 한국과의 관련성

한인기업들의 모국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심리적으로 한인기업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관계가 적다’(34%)와 ‘조금 많이 있다’(28%)가 유사하다. 재미 한인 기업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와 무관하다는 견해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인기업의 한인고용 비율은 60%로 한인 기업이 재미동포의 고용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인고용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부문은 70%, 제조업부문은 64%, 도소매업의 경우 45%, 기타의 경우 70%로 부문간 한인고용비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최근 1년 동안 한국에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는 한인기업은 전체의 11%에 불과했다.<sup>7)</sup> 이들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수익성(44%)과 시장의 성장 가능성(28%)이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은 11%였다. 이는 기업의 경영에서 수익성을 제외한 단순한 심정적인 측면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원리가 한인기업에도 적용됨을 보여준다.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하인 기업이 절반 이상이었고, 전체 수출액 가운데 한국으로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하인 기업이 또 절반 이상이었다. 한인기업 중 수출기업이 많지 않고, 또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많지 않다.

최근 1년 동안 응답자의 28%가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한국에서 수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수익성’(47%)과 ‘제품의 품질’(45%)이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은 6%였다. 전체 매입액중 수입액이

7) 수출, 수입, 투자는 업종별로 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하인 기업이 절반 이상이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하인 기업이 절반 이상이었다. 외국의 수입품을 이용하는 기업의 비중도 많지 않고, 특히 한국 제품의 수입 비중은 더욱 적다.

한인기업 중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이 47%였고, 투자지역으로는 87%가 미국이며 한국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3%에 불과하였다. 투자업종으로는 '금융/보험/부동산'분야가 4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 16%였다. 투자의 성과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0%이고 만족한다는 응답이 33%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이 3.17로 투자활동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을 얻고 있다. 투자활동 중 합작투자는 6%(14개 기업)에 불과하여 대부분 단독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전업의 의사'가 있는 기업은 16%에 불과하였고, 전업시 고려하는 업종으로는 '금융/보험/부동산'부분이 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도소매업으로 26%였다.

앞으로 한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42%가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투자 업종은 '금융/보험/부동산업'(54%), 무역/여행/운송배달서비스(21%), 제조업(16%)이었다. 한국투자시 한국관련정보는 주로 '신문'(32%)이나 '친척, 친구 및 친지'(21%)를 통해 얻고 있으며, 한국투자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시장의 성장가능성'(47%)과 '수익성'(40%)이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은 11%였다.

## V. 결 론

재미 한인들은 어느 민족에 비해서도 창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민전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위치를 이민사회에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업을 하고 있고, 또한 계층적 자원과 민족적 자원의 측면에서 한인들은 창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창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인데, 이는 한인의 이민 역사가 길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앞으로 이민 사회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점차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재미 한인기업의 규모를 종업원 수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기업의 평균 규모에 비해 작다. 그러나 자본금의 성장 속도나 매출액 증가가 높아 재미 한인 기업이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인 고용비율이 60%

이상으로 한인의 고용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산화 정도가 낮은 편이고, 투자나 수출입거래도 크지 않다.

설립자금은 절반 이상이 자기자본이나 친인척의 자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은행 등의 대출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 그러나 운영자금은 은행대출과 정부대출, 그리고 친인척자금 등을 고르게 이용하고 있다. 최근 한인은행 등이 설립되고 이들이 한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영업활동을 한 것이 한인기업의 은행 접근성을 높인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그리고 한인기업의 제품수준이나 한인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인기업의 수출입이나 투자경험을 보면 그 비율이 매우 낮다. 특히 현재 한국과의 경제거래는 크지 않다. 이는 한인 기업의 규모가 작아서 대외거래를 하지 않은 것이 한 요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석 단위를 산업별로 세분하지 않고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도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설문대상 기업의 사업별 비중은 서비스업이 45%, 제조업이 8%, 도소매업이 34%인데, 대체로 서비스업의 경우 국내 거래가 주를 이루기 마련이고, 도소매업의 경우도 수입은 하지만 판매는 국내판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외거래가 많기 어렵다.

한인 기업의 경영활동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창출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한인기업과 한국경제와의 관련성을 높이는 방법도 수익창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물론 모국과의 애정관계로 거래를 한다고 응답하는 기업이 10% 내외이지만, 이들 기업도 단순한 애정 관계만으로 경제거래를 지속할 수는 없다.

설문분석에서 한국경제와의 관계를 한인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업종마다 한국과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분화된 업종별로 한국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면 보다 구체적인 실태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Boissevain, Jeremy(1984), "Small Entrepreneurs in Contemporary Europe," pp.20-38, in *Ethnic Communities in Business*, edited by Robin Ward and Richard Jenki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mmergluck, Daniel and Erin Mullen(1997), "New Small Business Data Show Loans Going to Higher Income Neighborhoods in Chicago Area," *Reinvestment Alert*, Woodstock

Institute, pp. 1-10.

Jenkins, Richard(1984), "Ethnicity and the Rise of Capitalism in Ulster," Ch.4 in *Ethnic Communities in Business*, edited by Robin Ward and Richard Jenki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m, Kwang Chung and Hurh, Won Moo(1985). "Ethnic Resources Utilization of Korean Immigrant Entrepreneurs in the Chicago Minority Are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9(1), 82-111.

Light, Ivan and Bonacich, Edna(1988). *Immigrant Entrepreneurs: Koreans in Los Angeles 1965-198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in, Pyong Gap and Andrew Kolodny(1999). "The Middleman Minority Characteristic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S.," in Kwang Chung Kim, Editor. *Koreans in Hood*,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Min, Pyong Gap(1996).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quires, G.D. and Sunwoong Kim (1995), "Does Anybody Who Works Here Look Like Me? Mortgage Lending, Race, and Lender Employment," *Social Science Quarterly*, pp. 823-38.

Yoo, Jin-Kyung(1998). *Korean Immigrant Entrepreneurs: Network and Ethnic Resources*,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Yu, Eui-Young, Peter Choe and Sang Il Han(2002). "Korea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0: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71-107.

<http://www.kotra.or.kr/main/main.jsp>

<http://www.census.gov/econ/census02/>

**<Abstract>**

**A Survey on the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American Firms**

**Taegi Kim**

*Professor, Dept. of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American firms. We used survey data of the U.S. Census Bureau, KOTRA survey data, and the survey data of our research team. The firm sizes of most Korean-American entrepreneurs are smaller than the average size of the U.S. firms. They have not much experiences to trade with foreign firms and to invest foreign countries. The styles of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American firms are similar to those of general firms, whose main objects are to maximize their profits. Therefore,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firms and Korean-American firms we have to find out the way to get mutual benefits.

**Keywords:** Korean-American Firm, Survey, Business Activity.